KIA, '가을 야구' 막판 승부처는 9월 홈 14경기

KBO, 2025 프로야구 정규시즌 잔여 경기 일정 확정

안방에서 강한 KIA, 상위권 도약 '기회이자 시험대'
최소 5할 이상 승률 기대…5강싸움 넘어 3위 정조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가을야구 향방을 가를 막바지 일정이 확정됐다.

KBO는 19일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시즌' 10개 구단의 잔여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IA는 총 34경기를 남겨두고 있으며, 8월 12경기와 9월 22경기를 소화한다. 특히 9월에는 홈 14경기, 원정 8경기로 편성돼 가을야구 경쟁에서 분명한 이점을 안게 됐다.

8월 잔여 일정은 홈 6연전, 원정 6연전이다. 19-21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키움과 맞선 뒤, 22-24일 같은 장소에서 LG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이어 26-28일 문학 SSG, 29-31일 수원 kt를 상대하며 원정 시리즈를 소화한다.

9월에는 홈 비중이 뚜렷하다. 2일 대전 한화전을 시작으로 3-4일 광주에서 SSG와 2연전, 5일 kt와 홈 단판 승부를 벌인다. 6-7일에는 창원 원정에서 NC와 맞대결을 펼친다.

둘째주에는 9-10일 삼성과 2연전, 11일 롯데, 12일 두산을 상대로 광주 4연전을 마친 뒤, 13-14일 잠실에서 LG와 격돌한다.

셋째 주에도 안방 일정이 계속된다. 16-18일 한화, 20-21일 NC가 광주를 찾는다. 이후 23일 문학 SSG, 24일 고척 키움 원정을 다녀온 뒤, 27-28일 다시 홈에서 NC와 만나고, 30일 대구 삼성전을 끝으로 정규시즌 막을 내린다.

현재 순위 판도는 안갯속이다. 19일 기준 KIA는 53승 53패 4무(승률 0.500)로 kt, NC와 함께 공동 5위에 올라 있다.

선두 LG·한화와는 12경기 이상 벌어져 있지만, 3위권은 아직 가시권이다. 3위 롯데와는 2.5경기 차, 4위 SSG와는 불과 1.5경기 차다. 반면 8위 삼성과도 2.5경기 차에 불과해 추락 위험도 공존한다.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3위 확보다. 상위권 추격과 하위권 추락이 동시에 걸린 살얼음판 경쟁 속에서, 홈경기 비중이 큰 9월 일정은 KIA에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안방에서 팬들의 열띤 응원을 등에 업고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최소 반타작 이상은 해내야 5강 싸움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다.

한편, KBO는 이날 잔여 일정과 함께 세부 운영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에 편성된 경기는 미편성 경기와 우천 순연분을 포함해 총 98경기로, 모두 9월 30일까지 치러진다.

우선 8월 19일부터 9월14일까지 경기가 취소될 경우 발표된 예비일에 우선 편성된다. 예비일이 없으면 9월15일 이후 동일 대진일에 더블헤더로 편성하며, 동일 대진이 없을 때는 추후 일정을 잡는다.

9월15일 이후 취소 경기 역시 예비일을 우선 적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날 대진 성격에 따라 더블헤더 또는 추후 편성이 이뤄진다. 단, 월요일(9월15·22·29일)에는 더블헤더가 편성되지 않는다.

더블헤더 1차전의 개시 시간은 평일 오후 3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2시이며, 2차전은 평일 오후 6시30분,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5시에 시작한다.

1차전이 취소되거나 일찍 종료될 경우 2차전은 기존 경기 예정시간에 거행된다.

단, 1차전이 평일 기준 오후5시50분, 토·일요일 및 공휴일 기준 오후 4시20분 이후에 종료될 경우, 종료 최소 40분 후에 2차전이 열린다. /주홍철 기자

■ KIA 타이거즈 정규시즌 잔여 경기 재편성 일정

9월	2일	3-4일	5일	6-7일	9-10일	11일	12일	13-14일	16-18	20-21일	23일	24일	27-28일	30일
상대팀	한화	SSG	kt	NC	삼성	롯데	두산	LG	한화	NC	SSG	키움	NC	삼성
장소	대전	광주	광주	창원	광주	광주	광주	잠실	광주	광주	문학	고척	광주	대구

"광주는 부천, 그 너머를 꿈꾼다"

오늘 안방서 부천FC 상대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기선 제압 특명

지난달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에서 울산을 꺾고 준결승 진출을 확정한 광주선수단이 승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가 창단 첫 코리아컵 결승 진출 도전에 나선다.

광주는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천FC1995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지난달 2일 홈에서 열린 코리아컵 8강전에서 후반 30분 터진 조성권의 헤더 득점에 힘입어 강력한 우승 후보 울산HDFC를 꺾고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지난해 울산에 패하며 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아픔을 극복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우승을 꿈꿀 수 있게 됐다.

동기부여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

광주는 2024-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를 참가하며 큰 무대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후 이정효 감독과 선수단은 아시아 무대를 지향점으로 두고 매 시즌 대회 참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코리아컵은 광주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만약 부천을 누르고 결승 진출 및 우승이라는 염원을 이룬다면 즉시 ACL2 티켓을 확보해 놓을 수 있다. 광주 팬들이 염원하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리그 성적으로 인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다만 방심은 금물이다.

상대 부천은 올 시즌 K리그2에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뽐내며 4위를 질주하고 있다. 더욱이 코리아컵에선 제주SK FC, 김천상무, 김포FC 등 난적을 차례로 꺾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광주는 한치의 방심 없이 진지한 분위기로 부천전을 준비하고 있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다.

지난 17일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전방의 폭발력과 후방의 안정감 등 짜임새 있는 모습을 선보이며 2-0 승리를 챙겼다.

광주는 물오른 컨디션을 자랑하는 헤이스를 앞세워 홈에서 펼쳐지는 1차전서 확실한 기선 제압에 성공하겠단 각오다. /박희중 기자

'MLS 첫 선발+도움' 손흥민, 라운드 베스트11

'축구의 신' 메시와 나란히

〈MLS 홈페이지 캡처〉

손흥민(33)이 로스앤젤레스(LA) FC 유니폼을 입고 치른 두 경기만에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라운드 베스트11(팀 오브 더 매치 데이)에 뽑혔다.

손흥민은 MLS가 19일 발표한 2025 정규리그 29라운드의 '팀 오브 더 매치 데이'에서 당당히 한자리를 꿰찼다.

손흥민은 17일 열린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며 LAFC에 2-0 승리를 안겼다.

후반 6분 강한 전방 압박으로 마르코 델가도의 선제 결승 골에 발판을 놓은 데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 추가 골을 돕는 등 팀 득점에 모두 관여했다.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최대 2천650만달러(약 368억원)에 이달 7일 LAFC에 둥지를 튼 손흥민이 이적 후 2경기만에 올린 첫 공격포인트였다. /연합뉴스

KIA, 원정 선수단 더그 아웃에도 냉방 시스템 구축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원정팀 더그아웃에도 냉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KIA는 19일 "지난 12일부터 진행한 원정팀 더그아웃에 냉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를 이날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홈 더그아웃의 냉방 시스템 구축으로 선수단으로부터 큰 만족도를 얻었던 구단은 신속하게 원정 더그아웃까지 혹서기 대비 시설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원정 더그아웃에도 대형 패키지 에어컨 2대와 냉방 덕트가 설치돼 찬 공기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공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KIA는 향후 비시즌을 활용해 더욱 효율적인 냉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2단계 후속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홍철 기자

아사니, 이적료 100만 달러에 이란行

이적료 100만 달러에 이란 에스테그랄로 이적이 확정된 아사니 〈광주FC 제공〉

광주FC 핵심 공격수 아사니가 이란 에스테그랄로 이적했다.

광주FC 관계자는 19일 "지난 18일 에스테그랄과 아사니 이적과 관련한 최종 합의를 마쳤다. 공식 발표는 서류작업이 마무리되는 20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적료는 100만 달러(약 14억원) 단일 지급 조건으로 성사됐다.

아사니는 최근 잔여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보스만 규정'을 이용해 구단과 사전 협의없이 에스테그랄과 계약을 체결, 논란이 됐다.

이후 광주와 에스테그랄의 팽팽한 이적료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에 출전하는 에스테그랄로서는 아시아 무대에서 존재감을 입증한 아사니가 꼭 필요했고, 광주로서는 아사니를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며 코리아컵 우승에 도전한다는 전략으로 맞섰다.

이에 조급해진 에스테그랄이 광주의 요구 조건을 전격 수용하며 이적이 전격 성사됐다.

광주FC는 올 6월 프로축구연맹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1천만원 제재금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받았으나, 영입 금지는 2027년까지 집행유예 됐다.

다행히 광주는 에스테그랄이 20일 이란 이적시장 종료를 앞두고 손을 들면서 아사니의 이적료 회수로 재정 건전화 이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핵심 공격수 아사니의 이적으로 광주는 전력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20일 홈에서 부천FC와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을 시작으로 23일 K리그 강원전, 27일 부천FC와 원정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을 치르는 강행군에 돌입한다.

현재 순위표 6위에 자리한 광주(승점 35)는 7위 울산(승점 34), 8위 강원(승점 32), 9위 수원FC(승점 31)과 치열한 상위스플릿 경쟁 중이다.

강등권인 10위 제주(승점 30)와도 승점차가 5점에 불과해 매 경기가 중요한 만큼 아사니의 공백을 메울 이정효식 맞춤형 전략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박희중 기자